위안부 피해자 '기억의 꽃'으로…광주, 추모·인권 행사

5개 지자체 '기림의 날' 맞아
양림동·금남로 소녀상 앞 추모공간
증언록 낭독·합창단 공연 등 다채

광주 지자체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기념해 다양한 추모·인권 행사를 연다.

남구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양림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지지 않는 기억의 꽃'이라는 주제로 자율 추모 공간을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자리다.

12~13일 봉선동 봉선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영화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인권 문제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영회가 열린다.

남구는 14일 오후 5시 30분부터는 양림동 평화의 소녀상과 공예거리 야외광장 일대에서 제8회 남구 인권평화 축제를 열 계획이다. 14일 진행되는 추모 기념식은 오후 7시부터 1·2부로 나눠 열리며 고(故) 이옥선 할머니를 기리는 추모 묵념과 청소년·시민이 참여하는 문화공연과 자유발언이 이어질 계획이다. 현장에는 추모 체험과 인권 전시 부스도 함께 마련된다.

동구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금남공원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억과 교육'의 장(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14일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 무등중학교(역사동아리), 주민 등 30여명이 참여해 '기림의 날 추모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헌화 공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동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추모와 헌화 안내를 맡는다.

북구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8주년을 맞아 12일 오전 9시 5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교육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북구소녀상평화인권추진위원회 빙성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대표 증언록 낭독, 시니어합창단 공연, 소녀상 포토존 촬영, 사진전 등 다양한 평화·인권 프로그램을 함께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2025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구청장, 사회단체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부대 행사와 공연 등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서구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광복 80주년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림의 날 헌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사진전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에 열리는 다양한 기림 행사를 통해 시민들 모두의 가슴에 인권과 평화 가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행사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다짐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최근 광주시 동구 유기견 입양센터 '피스멍멍'에서 새 주인을 찾아 입양된 콩순이(왼쪽)과 토리.

"'피스멍멍' 유기견 콩순이·토리 입양됐어요"

동구 유기견 입양센터 개소 일주일만에 2마리 새 주인 찾아

광주시 동구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새로 들어선 유기견 입양센터 '피스멍멍'에서 개소 일주일만에 두 마리 유기견이 입양됐다.

광주시 동구는 피스멍멍 개소 1주일 만에 보호 중이던 유기견 콩순이와 토리가 각각 새 주인에게 입양됐다고 6일 밝혔다. 콩순이는 지난 4일, 토리는 5일 각각 입양됐다.

동구는 또 피스멍멍 개소 직후부터 자원봉사 등록과 방문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하루 평균 50여 명의 방문객이 센터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경기도, 서울, 순천, 정읍 등 전국 각지에서 센터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광주 충장로 인근을 찾은 관광객들이 SNS로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유기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앞으로 생명과 교감하는 가족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갈 것이라고 동구는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버려졌던 생명들이 지역 공동체의 정성과 기부로 다시 살아나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북구, 3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국토부 선정…드론 산업 실용화·사업화 적극 지원

광주시 북구가 3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광주시 북구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시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3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비행 시 필요한 특별감항증명이나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해당 구역 내에서 드론 개발 기관·업체들이 자유롭게 실증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북구는 지난 2021년 광주에서 유일하게 첨단산단 및 영산강변 일원(10.3㎢)을 1차 드론 특구로 지정받았다.

이어 지난 2023년, 올해 등 연속 3차례 드론 특구로 지정받으면서 오는 2027년 7월 28일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3차 지정 과정에서는 북구에서 추가로 신청한 석곡동 인근 산지 지역 18.6㎢ 구역이 추가로 특구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2개 구역 총 28.9㎢ 규모의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을 보유하게 됐다.

북구는 ㈜호그린에어, 한국광기술원, ㈜공간정보, ㈜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 기관·업체와 함께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실증 사업을 할 계획이다.

상용화 모델 개발을 목표로 액화수소 택배 드론, 국산 NPU 기반 경량 보드 탑재 드론, 드론 지상제어시스템, 다중관제 시스템 및 후처리 검증, 스마트 드론 통합 관제 시스템, 안티드론 시스템 내 영상인식 검증, 하천 부유물 탐지, eVTOL이착륙 유도 지능형 등화 장치 등 8개의 실증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3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북구가 명실상부 드론 산업의 메카임을 증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드론 관련 기관·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남구, 도시공원 흡연 단속 금연표지판 시설물 점검도

광주시 남구가 이번 달 도시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 남구는 오는 31일 광주시 남구의 도시공원 43곳에서 금연표지판 시설 정비 및 흡연 행위 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남구는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담배 연기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점검을 하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 4명과 금연 지도원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43곳을 방문, 공원마다 설치된 금연표지판 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할 방침이다.

훼손된 표지판은 오는 10월말까지 전부 교체될 예정이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가 도시공원 내 금연표지판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제공〉

또 담배를 피우다 현장에서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다수가 모이는 도시공원을 포함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주위 사람들의 유해 물질 노출과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며 "금연 문화 확대 및 정착을 통해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공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산구, 주민 주도 '동 미래발전계획' 추진

광주시 광산구가 민선 8기 들어 내놓은 '동 미래발전계획' 사업이 올해 실행에 옮겨진다.

광산구는 21개 동을 중심으로 '마을경험'을 축적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32개를 올해 안에 실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 행정계획을 넘어 주민스스로 마을의 방향을 설계하는 사업이다. 총 예산은 4억4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광산구는 '지속가능한 자치'에 방점을 두고 21개 모든 동을 '마을 정부'로 육성하는데 주력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동마다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자치교육과 토론을 통해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활동을 했다.

광산구 각 동 주민들은 동의 특성과 과제를 분석해 직접 마을 발전계획을 만들었다. 올해는 마을 상권 활성화, 공동체 강화, 녹지 조성 등 실질적인 정책들이 각 동에서 실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 '100세 시대 커뮤니티 헬스케어'(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 지난해 '1313 이웃살핌'(공동체 강화 분야) 등도 눈에 띄는 정책으로 주민스스로 조사하고 ,의제화하고,실행에 나서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동 미래발전계획'은 지방자치 본질을 회복하는 실험이자 선언"이라며 "주민이 마을에서 느끼는 삶의 문제를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구조를 통해 새로운 자치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7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미래발전계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산구는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